KT노동조합과 회사는 17일(화), ‘토탈영업TF 협의회’를 열고 세 번째 논의를 이었다.   
  
금번 회의는 그간 노동조합이 토탈 영업TF 관련,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회사가 진전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기존 영업부서 직원들과 동일한 영업 활동 지원’ 조합 요구에 대해 회사는 기존 직원과 동일한 출장 및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어 ‘B2C, B2B 영업 가능한 기반 환경 마련’ 요구에는 개인영업을 기본으로 하며 취약 공백지의 경우 현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광역본부 단위 대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노동조합이 꾸준히 강조한 부분이다.  
  
이에 회사는 공통교육(IT기본, 부문교육) 종료 후 광역본부 별로 비대면 교육 반영 이후 멘토링 제도를 운영 권고하기로 했다. Gtm 컨설턴트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순환배치 1년 단위로 확대(정기인사 시행 기준, 부문간 이동 가능)는 광역본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비연고지 배치 시 사내제도 조건완화(원격지 여비, 임차보조비, 이전비 등)는 현재 보수 복지제도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또 조직의 조기 안정화 및 영업력 향상을 위한 정식편제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조합 의견을 반영했다.  
  
**노동조합, ‘우여곡절 속 출범한 토탈영업TF 조합원 안정화 위해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등 꾸준히 시행할 것”**  
  
즉, 토탈영업TF운영조직 산하에 직속으로 관리를 위한 운영팀을 신설하고 각 지역별 편제조직의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ite 구분 기준은 기존 공백지 59개에서 취약지 84개를 포함한 143개 Site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토탈영업 TF 안정화를 위한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 추후 노사간 현장점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토탈영업 TF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반영   
KT노사, 토탈영업 TF 협의회서 세부사항 의견 도출**

[제15 – 106호]

2024년 12월 17일(화)